다중 염색과 재생 염색

최근 일본에서는, 중국 섬유제품의 수입량이 급증함에 따라 중국에서는 기술 부족으로 뒤따라 올 수 없는 고도의 염색가공으로 그들의 추격은 차단하고 있다. 그 방법의 하나로써 여러 부속(部屬)의 염료를 사용하여 높은 염색견뢰도와 독특한 정취를 보여주는 다중(多重) 염색이 있다.

다중 염색은 원래 경사와 위사에 같은 섬유를 사용하였어도 경사와 위사를 각기 다른 부속의 염료로 선염(先染)한 다음, 제직하는 기술에서 시작된 발상이라고 짐작되지만, 뜻밖의 좋은 정취를 얻을 수 있는 고급 염색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진즈를 구입한 다음 자기만의 차별화를 위하여 자기 나름대로 세탁을 여러 번 하기도 하고, 약하게 살짝 표백하기도 하여, 입던 옷 같은 느낌을 만들고, 자기 고유의 작품에 대한 기쁨을 즐기는 마니아(mania)들이 적지 않아 진즈 업계에서는 이들의 트렌드(trend)를 항상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환원(還元) 염료와 반응 염료를 이욕법(二浴法)으로 한 다중 염색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중고품 같은 느낌을 나타낼 수가 있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다중 염색에서도 세심한 주의와 축적된 기술로 좋은 염색견뢰도를 내고 있는 제품도 볼 수 있다.

나프톨(naphthol) 염료나 인단스렌(indanthrene) 염료는 다중 염색에서 베이스 칼러(base color)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면제품의 다중 염색에서는 거의 반응염료만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신상품을 기획할 때에는 오히려 반응염료를 다른 부속의 염료로 바꾸어 보는 것이 새로운 방안이 될지도 모른다.

그런데 어떤 염료 부속을 사용한 염색물이 염색불량이 되면 불량 염색이 보이지 않도록 다른 염료부속의 진한 색으로 이중으로 염색하여 제품화하기도 하는데, 이를 재생(再生) 염색이라고 하며, 이런 경우에는 소재의 물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주의하여야 한다.

흑색 황화(黃化)염료로 염색한 천은 섬유가 심하게 손상되어 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천이 빌빌 찢어지는 사고가 많은데, 염색공장에서는 "흑색 황화 염료로 검게 물들인 것은 빌빌 찢어져도 주문자가 불가피한 것으로 눈감아 준다"는 안이한 의식이 엿보이는 것 같다.

이 재생 염색과 다중 염색과는 비슷한 점이 많으면서도 종이 한 장 차이로 수준 높은 기술로 염색된 고급품이 되기도 하고 등외품(等外品)이 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고도의 기술을 발휘하다보면 위험율이 커서 불량율이 높아짐을 명심하고 세심한 준비와 주의가 필요하다.

어패럴의 기획전문가는 이러한 내부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염색기술자와 공동 책임을 지고 함께 울만한 각오가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지금 섬유제품의 수출을 다시 살리려는 움직임이 활발해 지면서, 일본만의 기술, 일본만의 테이스트(taste)를 지키고 발휘하자는 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그럴수록 어패럴과 염색공장은 운명을 같이 한다는 신뢰관계를 확실히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